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

|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

베트남의 경제안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경제안보-베트남

1. 머리말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승리한 호치민의 베트남은 프랑스의 80여 년 식민 지배를 종식시키고 독립했으나 그해 7월 제네바회의 결정에 따라 베트남은 17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프랑스군이 인도차이나에서 철군하자 미국은 17도선 남쪽에 월남정부를 세우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호치민의 월맹이 중·소의 공산주의 확산 음모에서 대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호치민의 월맹은 1975년까지 미국을 상대로 통일 전쟁을 치른 후 1975년 베트남을 통일시켰다.

통일 베트남은 월남 내 거주 중국인 박대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1979년 중국과 또 한 차례 전쟁을 치렀다. 20만 대군으로 베트남을 침공한 중국은 2개월 만에 6만여 명의 군을 잃고 철수하였다. 베트남도 5만여 명의 군 손실이 있었다.

4반세기 만에 세 번의 전쟁을 치른 베트남은 개발의 기회를 놓쳐 국민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다. 1975년 통일 직후 시행한 급속한 사회주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제재와 캄보디아 침공 및 중국과 전쟁에 따른 전비 부담 그리고 중국이 주도한 베트남의 국제적 고립화로 인해 3모작이 가능한 베트남은 매년 대규모의 쌀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다. 이에 베트남의 공산당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식주를 제공하기 위해 해방전쟁, 통일 전쟁, 국경 전쟁까지 치렀는데, 국민들이 도탄에 빠진 것은 통치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1986년에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시장경제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도이머이 ((Đổi Mới), 쇄신)’을 채택하고 대외 개방을 통해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1987년 12월 7일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 덕분에 개방 초기 부족한 국내자본 상황을 대외원조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했다.

베트남은 1990~2010간 연평균 7.2%의 고도성장을 실현하여 개방 20여 년만인 2009년에 중소득국가군에 진입하고 현재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를 국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와 경제성장 기초 하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비중(15~64세 비중이 70% 이상)이 높고 유교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우수하고 노동력의 질이 양호하여 저임금 노동의 안정적 공급에 유리해서 베트남은 지금 생산기지로서 국제 투자의 자석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기간 중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 베트남은 2020년 2.9%, 2021년 2.6%, 2022년 8.02% 등 플러스성장을 보였으며, IMF는 베트남이 2023년에는 6.7%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불에 이르는 중간소득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한국수출입은행의 베트남에 대한 국가신용도 평가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7% 내외의 성장을 지속해온 베트남 경제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FDI 유입 감소, 관광업 침체,



내수 위축 등을 겪어 예년 대비 저조한 2%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산업생산과 수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공산당 1당 체제이나 사회·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응우옌 푸 쯙 공산당 서기장이 2021년 1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례적으로 세 번 연속으로 서기장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권력 집중이 우려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은 ASEAN 내 제조업 중심지로서 FDI 유치와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교란 영향에 따른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 수요에 대응하는 유력한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FDI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실현 등으로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여 외채상환능력 및 상황 태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개황]

면적	인구	정치체제	대외정책
331천km ²	9,832만명 (2021 ^e)	사회주의 공화제	미국, 중국과 균형외교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U\$기준)
3,662억 달러 (2021 ^e)	3,725달러 (2021 ^e)	Dong	23,159.8 (2021 ^e)

[주요 대외경제지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1,649	5,899	13,101	14,932	5,546
경상수지/GDP	-0.6	1.9	4.0	4.4	1.5
상 품 수 지	10,846	16,540	21,494	30,578	24,410
상 품 수 출	215,119	243,697	264,189	282,592	349,844
상 품 수 입	204,273	227,157	242,695	252,014	328,434
외환보유액	48,693	55,074	77,955	94,436	108,446
총 외 채	107,991	109,964	122,276	129,295	139,834
총외채잔액/GDP	39.0	36.3	37.3	37.7	38.2
D.S.R.	6.1	7.1	6.1	6.6	5.8

2. SWOT 분석



베트남 SWOT 분석

강점(Strength)(국내)

S

- ✓ 발전 잠재력(정치사회안정, 황금의 인구구조, 풍부한 자원, 양질의 노동력, 지도층의 강력한 개발의지)
- ✓ 강한 복원력
- ✓ 견실한 경제성장

약점(Weakness)(국내)

W

- ✓ 글로벌기준에 미흡(정치, 민영화, 금융, 경제구조, 교육, 인프라, 반부패)
- ✓ 인구고령화 진행
- ✓ 남북 간 정서 및 발전 차이

기회(Opportunity)(대외)

O

- ✓ 국제 무역과 투자의 자석
- ✓ 세계경제에 통합 추진
- ✓ 국제 위상 부상
- ✓ China + One
- ✓ 한국 관련
 - 영토 주권문제 부재
 - 경제적 보완성
 - 역사적 배경, 문화적 유사성 공유
 - 한국을 발전 모델로
 - 아세안 시장공동 진출

위협(Threat)(대외)

T

- ✓ 남중국해 분쟁
- ✓ 캄보디아와 분쟁재연 가능성
- ✓ 한국 관련
 - 참전 후유증
 - 무역불균형
 - 불법이주근로자
 - 베트남인 다문화 여성
 - 한국인에 대한 반감 가능성

※ 강점: 베트남의 발전 기반 튼튼

(정치적·사회적 안정)

1930년 호치민 주도로 창당된 공산당은 프랑스와 독립전쟁, 미국과 통일전쟁, 그리고 중국과 국경전쟁 등에서 승리했고,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를 채택해서 베트남을 개방으로 이



끌어 한세대 만에 베트남을 중간소득국가군으로 진입시키고 두 번이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등 국제사회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부상시킨 공산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신뢰 견고한 것으로 관찰된다. 베트남은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보수화 속에서 경제 개혁을 지속하면서 공산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 당서기장·주석·총리·국회의장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황금의 인구구조 및 인구증가 추세)

베트남은 황금의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96백만 인구 중 30대 인구가 60%를 상회하고 최근 인구증가율이 다소 둔화하는 되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나라다. 베트남은 총인구(2019년 통계 9,615만 명)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 이상이며 이 중 3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적어도 20년 이상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다.

(풍부한 자원)

베트남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석유와 가스는 자급자족하며, 적은 규모이지만 수출도 한다. 석유(매장량 44억 배럴, 전 세계 매장량 0.3%, 2017년 기준 아시아 3위(동남아시아 1위, 세계 24위 수준, 베트남 GDP의 20% 차지), 가스(6천억 m³, 전 세계 매장량 0.3%)로 자급자족하고 일부는 수출하고 있다. 석탄(매장량 43억 톤, 세계 17위) 외 보크사이트(추정 54억 톤), 텅스텐, 티타늄, 구리, 금, 철광석, 희토류 등 광물자원에 이어 베트남은 제2의 커피 수출국이고 제2위의 쌀 수출국이다.

(양질의 노동력)

베트남은 국민 기본교육이 우수하고 노동력의 질이 양호하며 유교의 영향으로 국민의 매우 근면해서 베트남인들의 재능은 널리 알려져 있다.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인들의 근면과 재능을 신뢰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 등 제조품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시장에서 반품율이 매우 낮다고 한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70%가 훈련된 노동력이며, 이 중 30%가 자격증을 구비한 전문 인력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도층의 개발 의지)

베트남 지도층은 국민의 의식주 개선을 위해서 개발과 성장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최빈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개방 전후 베트남 지도자들은 세계은행이 간행한 한국의 개혁과 개방을 소개한 “Policymaking on the Front Lines, Memoir of a Korean Practitioner, 1945-79, Chung-yum Kim”을 깊게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등이 제공하는 ODA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리 ODA의 1위 협력국이다.

(강한 복원력)

3번의 전쟁, 냉전 종식에 신속한 적응, 비효율적인 시스템의 과감한 개혁 등 강한 복원력 복원



력이 주목된다. 변화하는 정세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은 베트남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인다. 베트남 사람들은 열악한 자연여건과 인고의 역사를 거치면서 탄력, 수용의 지혜를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토착문화에 중국문화와 인도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고유의 문화로 발전시키는 연금사의 자질을 발휘했다.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직후에 과거 적대 국가와 수교하고 자신을 견제하려고 만들어진 아세안에도 가입했다. 이후 WTO, IMF 등 국제기구에도 가입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두 번이나 수행했다. 전쟁을 치르느라 늦게 관심을 가진 스포츠에서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동남아시아축구대회에서 우승국이 되기도 했다. 베트남은 한자 문화, 젓가락사용, 유교 영향 등에서 우리와 공유하는 점이 많다. 학문 숭상, 가족 중시, 근면 등 가치를 공유하여 문화가 두 나라 국민 간 교량 역할을 하여 소통 등에서 상호 견인하는 장점을 누리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 어느 나라와도 가질 수 없는 특징이다.

(견실한 경제성장)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채택 이후 1990~2010간 연평균 7.2%의 성장,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연평균 6.5% 이상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2020년 2.9%, 2021년 2.6%, 2022년 8.02% 성장하고, 2023년에는 6.7% 성장 등 강한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성장은 대외개방지향정책에 힘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22년 현재 GDP 4,138억 달러, 국민소득은 4,110달러, GDP 성장률 8.02%, 교역 7,325억 달러(수출 3,718.5억 달러, 수입 3,606.5억 달러)다. 베트남은 개혁과 공정경쟁 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여 2035년까지 1인당 GDP 10,000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하에 거시경제 안정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경제성장 촉진, 행정 및 사법개혁, 부패 척결 노력 지속하고 있다. IMF의 예측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2027 5년 간 6.96%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2027년에는 명목 GDP가 6,900억 달러에 이르러 태국을 제치고 동남아에서 2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6.9	7.2	7.2	2.9	2.6
소비자물가상승률	3.5	3.5	2.8	3.2	1.9
재정수지/GDP	-2.0	-1.0	-3.3	-3.9	-4.2

이처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에 힘입어 2018년 이후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베트남 신용등급도 상승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베트남의 총외채의 약 80%가 중장기 차관으로 구성되어 외채구조가 양호하여 외채상환 부담이 크지 않으며, 2021년 말 외환보유액이 1,084억 달러(추정)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여 외채상환 능력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8년 5월 Fitch는 높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BB- → BB), 동년 8월 Moody's



도 경제성장 지속과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B1 → Ba3). 2019년 6월 OECD는 정치 안정, 경제 성장세 지속, 외채상환 부담 감소 등을 근거로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주요 기관별 평가 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21.06)	4등급 (2020.06)
Moody's	Ba3 (2021.09)	Ba3 (2021.03)
Fitch	BB (2022.03)	BB (2021.04)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루트로 외화가 안정적으로 조달되고 있다.

- 외국인직접투자(2019) 382억 달러 총 GDP의 22.8%
- 차관(세계은행, ADB 등)(2020) 62억 달러
- 관광수입(2019) 308억 달러 총 GDP의 10%
- 공적개발원조(2020) 32.6억 달러
- 해외교포송금(2020) 167억 달러 총 GDP의 5%

※ 약점: 글로벌 기준에 미흡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2006년 그의 저서 'a brief history of the future'에서 베트남이 정치·금융·교육 분야에서 개혁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패를 척결 한다면 2025년 인구 1억2천5백만 명의 나라로 아시아의 3위 경제력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베트남의 국가위험도 분석에서 국내적으로는 부패문제가, 대외적으로는 남중국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

베트남은 공산당 내 민주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집단지도체제로서 정부 운영 관련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 정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공산당 일당 지배, 복수 정당 불허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인권문제에서는 국제기준에 미흡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영기업개혁)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민영화 또는 청산 ▲인수·합병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노동자 대책 수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① 법적 토대 제약 ② 세계 경제 위기로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 부족, ③ 급속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정책의 한계 등으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2011~2015년간 531개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었으나, 초반 3년간 민영화된 기업은 약 200여 개 국유기업이 민영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경영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583개 국영기업(2016년 기준) 중 128개사를 2020년까지 완전 또는 부분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목표시한보다 1년이 경과한 2021년 말까지 39개 기업을 민영화하여 목표 달성률이 30.5%에 불과하다.

(금융)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이후 국영 상업은행 외에 민간상업은행 설립을 허가했다. 개혁의 핵심인 가격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인플레이 유발 등 은행부실을 초래하였고, 2012년 12월 세계은행은 베트남 정부에 금융권 부실채권이 베트남 성장의 저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시급한 해결 촉구한 바 있다. 중앙은행은 42개 상업은행을 15개 정도로 축소를 추진 중이고, 2015년 자산공사를 설립해서 부실채권을 3% 이내로 축소 추진 중에 있다.

(경제 구조)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1차 산업(농업, 임업, 수산업 등)이 14.57%, 2차 산업이 34.28%, 3차 산업이 41.17%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 전기·전자, 철강, IT 등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면서 제조업, 부품·소재,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에 우선순위 부여하고 있다.

(교육)

베트남의 교육제도는 급증하는 고급인력 부족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UNDP(2021) 인적개발지수(HDI)에서 베트남은 191개국 중 116위다. 자연과학·정보·기계 등에서 글로벌 기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삼성,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등 외국인투자 유입증대에 따라 특히 금융, IT, 솔루션, 제조엔지니어링, 소매 등에서 고급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CPTPP, RCEP 발효 및 미·중 간 경쟁으로 인해 China+One 대상지로 베트남에 생산기지 이전 증가하는 것도 고급인력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FDI 유인 요인이기도 하나 낮은 수준의 노동력과 기술이 지속 가능한 투자유치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간소득 국가로 진입한 베트남은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풍부하고 창의성이 뛰어난 노동력 필요하며, 급속한 경제발전 속도에 맞게 고급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T,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과 선진교육제도 도입 추진 중에 있다.

(인프라)

WEF(2021)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경쟁력지수는 144개국 중 68위다. 도로,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의 경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 하노이 중심의 북부 지역과 호치민 중심의 남부 지역에는 도로망이 비교적 조밀하게 개선되어 있으나, 중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포장도로는 전체 도로 연장의 28% 정도인데, 포장 상태가 불량한 상태다. 2020년까지 누적 연장 2,700km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철도: 운행 중인 철도는 총 3,143km로 6개 주요 노선과 기타 간선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노선이 단선이며 협궤(1,000mm) 85%, 국



제표준궤(1,435mm) 7%, 표준궤와 협궤 병용 구간이 8%이다. 기관차 및 차량, 철도 교량을 포함한 철도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로 하노이~호치민 간 철도의 평균 주행 속도는 60km/h(노후 구간 40km/h)이다. 항공: 국제공항은 노이바이(Noi Bai, 하노이), 떤선니엣(Tan Son Nhat, 호치민), 깃비(Cat Bi, 하이퐁), 다낭 등 7개이고 국내선은 14개 공항, 항공은 여객 수송량의 21.4% 담당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체 10개 국제공항과 16개 국내선 공항으로 확충하고 승객 처리 용량 증대 계획이다.

(부패)

세계투명성기구(TI)에서 조사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베트남은 2021년 기준 39점을 획득하여 180개국 중 104위 수준, Global Risk Profile의 2021년 부패조사에서도 베트남은 총 196개국 중 130위로 뇌물, 착복 등 뇌물위험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중인 2021년만 하더라도 입찰, 예방, 방역을 위한 의료장비 구매에서 부패가 40.97%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다.

베트남의 부패는 외자 유치 및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 부패는 베트남의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로 불리는 개방개혁 정책을 수립한 이후 베트남 경제는 고도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호림) 베트남의 부패는 세금, 재정, 금융, 보석, 세관 등과 같은 경제활동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건강 보건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영 대기업군의 부패가 만연하여 정부의 고충이 크다. 부패는 경제활동을 왜곡시키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경제적 재앙을 만든다. 베트남 부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커미션 문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무역 제한(수출입 쿼터 제 형태), 정부보조금, 가격통제(특히 전기, 가스, 수도 등), 복수의 환율 관행, 공공분야 및 공직의 저임금 구조(정부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 데 권력을 남용하게 함), 자연자원 기부금(사업가와 정치가 사이의 정경유착 강화),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소들로서 선물 주고받기 관행의 보편화, 관계중시 등 사회 특성 등이 꼽힌다.

베트남은 2011년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해오고 있으나 부패는 여전한 상태로 분석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반부패 관련 법령제정, 반부패기구 설립 등 지난 10년간(2012~2022)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700개 이상의 당 조직에 걸쳐 약 168,000명의 당원에 대해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7,390명의 당원이 부패 혐의로 처벌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170명의 고위급 인사가 징계 조치를 받았으며 이 중 중앙집행위원 33명, 장성급 인사 50명이 처벌되었다고 한다. 2023년 초에 베트남 국가주석과 두 명의 부총리가 부패혐의로 사임하였다.

(인구 고령화 진행)

2005년 베트남은 ‘황금 인구’ 시대로 전체 인구의 40%가 16~30세의 인구구조로 젊은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메리트로 많은 해외 기업과 공장들에게 유인책이 되었다. 그런데 베트남도 인구 고령화에서는 예외가 아닌 듯하다. 베트남은 203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5%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5%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채워져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2년 베트남 평균 연령은 35세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베트남 '2020 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평균 연령은 32.5세. 2017년 평균 연령 29.7세를 마지막으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의 고령화는 결국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에 이어 전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부상해온 베트남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즉 15~64세 인구가 줄면 그만큼 인력 공급이 떨어지고 제조업 유치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은행도 이러한 고령화 속도라면 2020~2050년 베트남 경제성장은 지난 15년 간 성장 치와 비교해 1~2%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전문가들은 4차 산업 혁명이 의류, 신발, 해산물 가공, 전자 제품 조립, 소매 및 기타 부문의 노동자를 자동화로 대체함에 따라 베트남의 저비용노동 이점을 낮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베트남 남북 간 정서 및 발전 차이)

베트남에도 남북 간 지역 간 정서의 차이 그리고 지역 서로에 대해 시각이 다른 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배경, 거리, 문화적 차이에서 지역 간 심리적 차이는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은 명목상 후기 레왕조 기간 중 거의 150년 동안 북쪽은 찐왕조, 남쪽은 응우옌왕조로 분리되어 있었다. 근세에는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다시 남북이 나뉘었다. 베트남은 남북이 1,650킬로미터이며, 북쪽은 아열대, 남쪽은 열대 몬순의 날씨다. 이런 영향으로 두 지역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서로 다르다고 한다. 북쪽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도덕적인 성향이 있고 남쪽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낙천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북쪽 사람들은 중국의 유교의 영향에 오랫동안 젖어서 보수적이고 남쪽 사람들은 자유 분망하다고 이야기되기도 있다. 통일이 북쪽 사람들이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남쪽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정복자로 군림하는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베트남 정치체제에서 보면 대체로 통일을 주도한 북쪽 사람들이 정치(당서기장, 국회의장 등) 분야를 맡고 남쪽 사람들이 주석과 총리직 등 실권을 맡는 등 권력을 나누어갔고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후 남쪽이 북쪽보다 더 소득이 높다고 한다. 지역감정이 당장 불안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감정은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지도자들은 이 지역 간 감정의 차이가 심리적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노력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회: 발전 잠재력 다대

(국제 무역과 투자의 자석)

2021년 현재 베트남의 총 외국인투자금액은 4,080억 달러다. 이중 한국이 18.3%(746억 달러), 일본이 15.8%(643억 달러), 싱가포르가 15.8%(64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안정, 천연자원의 부존, 국민의 근면성, 젊은 인구 확보 등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Jacques Attali가 말한 대로 베트남은 국제 무역과 투자에서 자석으로 계속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對 베트남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U\$백만, 건,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투자 금액	37,101	35,466	38,952	28,530	31,153
(증감률)	(37.9)	(4.4)	(9.8)	(-24.9)	(9.2)
투자 건수	9,000	10,711	16,227	9,804	6,520
(증감률)	(-8.4)	(19.0)	(51.4)	(-35.0)	(-33.5)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1.12.20. 기준

(세계 경제와 통합 추진)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의 선언 후, 1987년 외국인투자유치법을 도입하고 2007년 WTO에 가입하는 등 개방과 개혁의 정책을 채택, 연평균 7%를 상회하는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IMF, WTO, 세계은행 가입과 한국, 일본, EU, 영국과 FTA 체결, TPP, RCEP 등 다자무역협정 가입 등 세계 경제와 통합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 위상 부상)

1975년 통일을 달성한 베트남은 미국 주도 제재와 1978년 캄보디아 침공, 1979년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고립화가 더해져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9년 캄보디아로부터 철군 및 1991년 중국과 국교 회복 후 한국 등 과거 월남전 참전국들은 물론 광범위하게 외교 문호를 개방했다. 1993년 세계은행 가입, 1995년 아세안 가입, 1996년 ASEM 출범 시 아세안 국가로 참여, 1997년 IMF 가입, 1998년 APEC 가입, 2008년~2009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2017년 APEC 의장국 수임, 2020년~2021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다자조약으로는 생물 무기 금지협약(1980), 핵비확산조약(1982), 유엔 해양법협약(1994), 유해 폐기물 국경이동 및 처분에 관한 바젤협약(1995), 화학무기금지협약(1998), 포괄적 핵 금지 협약(2006), 파리기후변화 협약(2016) 등에 가입하여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188개국과 수교하고, 96개국에 공관을 주재시키고 있다(2019년).

(China + One)

미·중 간 경쟁과 코로나19사태를 거치면서 애플과 구글을 포함해 글로벌 빅테크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기지로 베트남이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즉 중국 대체지로는 베트남이 가장 주목 받고 있다.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정책만으로도 해외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국 투자국들이 미국과 중국 간 정치·외교적 갈등을 계기로 중국투자대체지로 베트남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2010년대 초반 중-일 간 영토분쟁 이후 베트남을 비롯해 아세안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도 같은 맥락에서 대두되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을 대체 투자지로 선정한 데에는 베트남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안정,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중국의 1/3수준에 불과한 값싼 임금, 6~7%의 높은 경제성장률, 각종 법인세 혜택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일찍부터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베트남 GDP의 40%, 베트남 총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활발하게 진출해 2020년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수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 수를 초과했다. 베트남과의 경제 연계도 크게 강화되어 베트남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2019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해외투자 2위 대상국으로 올라섰다.

일찍부터 매력적인 투자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 10년 사이 세계 경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전 세계 對 베트남 수입은 2010년 775억 달러에서 2019년 3,251억 달러까지 연평균 17.3% 증가해 글로벌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크게 확대되어 2019년 FDI 유치 금액은 2010년 대비 1.96배 상승한 39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오는 기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노동력, 공장부지, 인프라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산업단지의 임대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입주율도 크게 증가해 일부 단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기업의 인력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소비시장 규모가 훨씬 작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시 내수보다는 해외수요에 의존해야 한다는 리스크도 있다. 베트남의 노동력과 인프라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관련

(경제적 보완성)

베트남은 우리에게 토지, 노동력, 시장을 제공하고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베트남은 3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황금의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인구증가율이 다소 느려지는 지고 있지만 베트남은 상당 기간 인구가 늘어남이라 예측되고 있다. 현재의 인구구조만 가지고 살펴보더라도 베트남은 앞으로 적어도 20년 이상은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베트남은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서 우리를 포함하여 선진국기술과 상호보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배경 및 문화 유사성의 공유)

베트남은 거대 중국과의 관계에서 1,000년 간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베트남은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와 유사하다. 한편 문화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 대해 매료를 느끼고 있다. 한자 문화, 젓갈 사용, 쌀 주식, 유교 영향 등은 우리와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어 상호 이해와 소통에서 용이한 측면이 강하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매우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다. 베트남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92%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이제 한국어가 베트남 교육과정에서 제1의 외국어로 채택되었다. 한편 베트남과 민주주의, 인권 등 글로벌 가치를 두고 상이한 인식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문화적 충돌의 경우에는 국제법 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또는 OECD 기업경영원칙 등 유엔 또는 국제 기준 또는 관행 활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발전의 모델로)

베트남은 한국을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다. 양국 간에는 지정학적 분쟁이나 영토문제가 없고, 베트남의 발전 의지에 한국이 적극 협력해 오고 있다. 베트남은 국제사회와 ODA 협력에서 수용과 이행에서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ODA 협력에서 1위의 파트너이고 한국은 제2의 대 베트남 ODA 제공국이다.



(대 아세안시장 공동 진출)

수교 이후 두 나라 간 무역과 투자는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2021년 기준 누적 746억 달러(투자 건수 9,265건)로 베트남에게는 1위 투자대상국이다.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베트남의 총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 해외투자의 4위 대상국이다. 두 나라는 2015년 양자 FTA 체결하여 발효시켰다. 두 나라 간 경제의 보완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인구 6억 7천만 명, 무역 2위 파트너, 해외투자 2위 대상지, 해외건설수주 2위 등 우리에게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아세안시장에 공동 진출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의 파트너로 보인다.

※ 위협

(남중국해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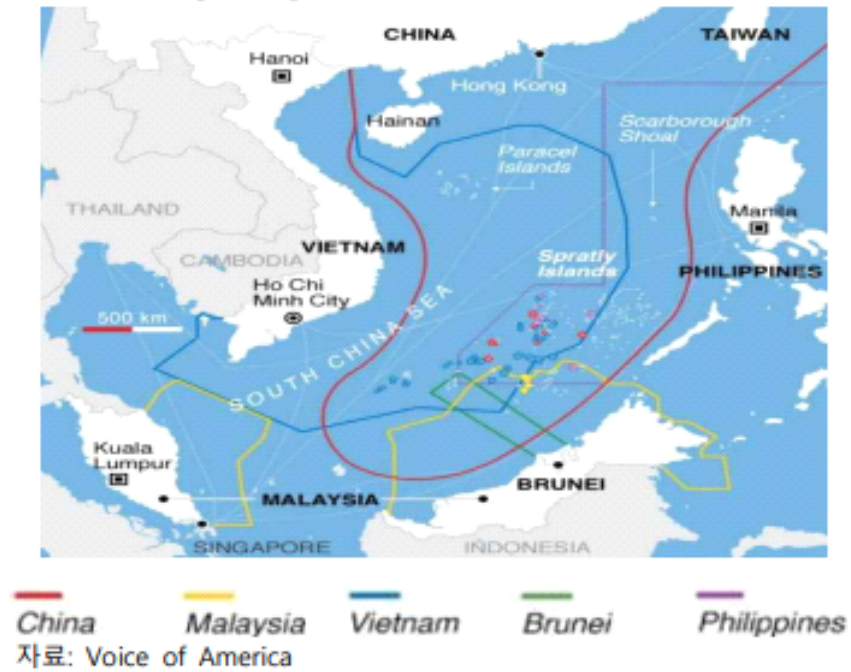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군사상 요지인 데다 부근에 유망한 해저유전/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참 경제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나 일대일로로 일환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군사 요충지를 확보하여 미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으려는 야망을 품은 중국이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다. 중국은 “소의 혀” 모양의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해이며,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섬은 중국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남중국해를 역사적으로 실효지배했다는 증거는 없다. 중국의 주장에 대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가 스프래틀리군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상 도서관련, 베트남과 중국 간 분쟁은 주로 파라셀군도(Paracel Islands, 베트남은 호앙사군도, 중국은 시사군도, 55개 섬과 암초)와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 베트남은 쯔영사, 중국은 난사군도, 25개 섬과 다수의 암초)에 관련이 있다. 두 개의 군도는 과거 남베트남(월남)이 소유하였으나, 파라셀군도는 1974년 중국이 무력으로 남베트남군을 몰아내고 장악하여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통일 베트남 정부도 이 군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스프래틀리군도는 현재 베트남이 12개 섬, 중국이 9개 섬, 필리핀이 1개 섬, 말레이시아가 1개 섬, 대만이 1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8년 3월에 스프래틀리군도 지배권을 두고 통일 베트남과 중국 간 군사충돌이 있었다. 2002년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에 있어서 분쟁당사자간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de of Parties in South China Sea)”이 서명되었다. 그러나 이 선언을 구체화하는 “행동계획(Code of Conduct)”의 협상에는 지금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2007년 베트남-영국 BP사 간 남중국해에서 천연가스개발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파라셀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를 관리하는 행정단위로 산사시를 만들어 남중국해문제는 외교문제화 되었다. 2014년 5월 중국의 파라셀군도 시추선 설치 등으로 인해 양국 갈등 고조되었는데, 2015년 베트남 당서기장 및 시진핑 주석 상호 방문 등 최고위급 외교로 갈등을 일단 봉합한 바 있다. 베트남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에 기반하여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원자재·부품 공급국으로서, 베트남으로서는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서도 대중국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바, 고



위급 교류를 통해 신뢰 유지 노력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 간 남중국해 분쟁은 언제든 재발될 가능성이 배제할 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캄보디아와 분쟁 재연 가능성)

베트남은 약 800년에 걸친 남진으로 캄보디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813년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보호국이 되었다. 프랑스 식민 시기에도 베트남의 캄보디아 지배는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끝에 일본이 패배하자, 이때 프랑스에 대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베트남군은 무기와 식량, 부대 수송에 종종 캄보디아를 이용했다. 한편, 베트남 공산당은 남베트남을 공격하는 수송로나 디딤돌로서 캄보디아를 이용했다.

1975년 4월에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면서 곧바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새로운 분쟁이 일어났다. 베트남 공산당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크메르(캄보디아)와 라오스를 합병해 연방



을 형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크메르와 라오스는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길 원했다. 이전 북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는 서로 공존공영의 관계로 함께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신생 캄보디아는 베트남 공산당이 인도차이나 연방을 만드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의심의 눈으로 북베트남을 계속보고 있었다. 따라서 캄보디아 정부는 1975년에 프놈펜을 함락시키면 곧바로, 캄보디아 영토에서 북베트남군의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양국 간 최초의 대규모 전투는 1975년 5월 1일로 캄보디아 혁명군은 캄보디아 령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베트남 푸꾸옥섬을 침공하면서 일어났다.

1976년 연말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상호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양국 지도부는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야말로 동남아의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의 지원자이며,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지배를 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것이 북베트남이 론놀 정권과 싸우는 크메르 루주를 지원한 이유였다. 베트남,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들이 파테트 라오와 같이 승리할 경우 친 베트남 노선을 채택할 것이라는 희망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메르 루주 통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북베트남 군 부대는 동맹군에게 무장 공격을 당했고, 이미 1973년에는 그 희망이 분쇄되었다. 캄보디아 공산당의 친 베트남 인사가 배제되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의 입장은 전후 더욱 악화되었다.

프놈펜의 캄보디아 지도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의 역사적 우월로 인해 베트남 지도부에 대한 혐오와 공포감이 늘어나고 있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인도차이나에서 베트남의 전략은 베트남에서 훈련된 공산당원이 캄보디아 공산당과 라오스 공산당의 일부가 되어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였다. 민주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혁명군은 국경을 넘어 베트남 마을을 공격하는 병사를 계속 보냈다. 캄보디아 대규모 침공에 분노한 베트남 인민군은 약 6만 명으로 구성된 8개 사단을 소집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캄보디아의 전투 부대는 베트남 군에 의해 곧장 점령지를 잃었다. 1977년 12월 말에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대한 명백한 승리를 거뒀다.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대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의 우월적 지배에 우려한 중국은 1979년 베트남을 침입하였다. 중국이 베트남을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어려웠을 때 도와줬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그것도 모자라 베트남이 중국의 주적인 소련과 손잡고 포위망을 좁혀온 것에 분노했다.

약 1개월 전쟁에서 중국은 6만여 명의 군사를 잃고 퇴각하였다. 이후 중국은 베트남을 국제적으로 고립화시켰다. 베트남은 1989년 캄보디아서 철군하면서 중국과 복교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91년 중국은 베트남과 복교는 했지만, 자기 국경에 인접해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베트남을 견제하는 측면서 캄보디아와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베트남을 견제하려는 캄보디아는 중국에 경사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베트남의 남진에 역사적 구원을 가진 캄보디아는 구원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다시 베트남에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로 보인다.



(한국 관련)

(월남전 참전 후유증)

우리나라는 월남전이 한창일 때인 1965년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기간 중에 파병하였다. 1964년 9월 11일 1개 의무중대 및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하는 등 후방지원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가 파병되었고, 1966년에는 "브라운 각서"의 조인으로 백마부대가 추가 파병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지원단 및 백구부대 등 1개 군단 병력을 파견하여, 베트남전 참전 8년간 총 31만 2천853명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이로써 미국 다음으로 베트남 전쟁에 깊이 개입하였다.

1992년 수교 당시 양국 지도자들은 우리의 월남전 참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보 반 키엣(Vo Van Kiet) 총리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상옥 외무장관은 “과거 한 때 양국 간 불행한 관계는 냉전 구조 속에서 있었던 일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양측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정부는 참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고, 2018년 켄 다이 팡 베트남 국가주석은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이 참전한 중부지역에 학교 40개 및 대규모 종합병원을 건축하고 불발탄 제거 작업을 지원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1999년 이래 한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안해요. 베트남”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2003년 푸옌성에 한-베 공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앞으로 양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시 국제상황 및 우리의 참전 배경을 잘 교육시키고, 베트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겠다.

한편, 2023년 2월 한국의 1심 법원은 월남 전 중 한국 군인이 월남 주민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판결이 상급심까지 유지된다면 한국과 베트남 간 미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불균형)

우리는 베트남의 3위, 베트남은 우리의 4위 무역상대자다. 베트남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2위 무역상대국이 될 전망이다. 베트남과 수교 이래 두 나라 무역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흑자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총 3,088억 달러 흑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가 누린 무역흑자는 179억 불(2015), 201억 불(2016), 315억 불(2017), 289억 불(2018), 271억 불(2019), 279억 불(2020), 327억 불(2021), 342억 5천만 불(2022) 이다.



K-stat 무역통계 - 한국무역협회

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2022년	51,562,735	13.0	8,658,860,335	24.0	22,915,730	16.5	7,176,701,327	9.0	28,647,005
2021년	56,728,532	16.9	8,575,180,635	-12.9	23,965,707	16.5	8,268,561,423	-1.5	32,762,825
2020년	48,510,572	0.7	9,847,761,252	-3.5	20,578,589	-2.3	8,392,809,360	7.0	27,931,983
2019년	48,177,749	-0.9	10,202,386,895	10.8	21,071,557	7.3	7,842,667,644	-6.3	27,106,192
2018년	48,622,098	1.8	9,207,243,761	-3.9	19,643,385	21.4	8,367,277,204	25.4	28,978,713
2017년	47,753,839	46.3	9,579,572,716	20.8	16,176,992	29.5	6,671,854,751	14.9	31,576,847
2016년	32,630,457	17.5	7,930,052,979	31.6	12,495,154	27.4	5,805,699,079	8.3	20,135,303
2015년	27,770,750	24.2	6,025,368,020	15.2	9,804,831	22.7	5,360,322,314	-13.7	17,965,919

이런 무역역조 현상은 두 나라 간 구조적인 무역관계 때문인데, 즉 9천여 개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이 부품 등 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 무역역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멀지 않은 장래에 두 나라 간 교역은 1천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이 우리의 글로벌 공급 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품 및 소재 등에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인 불법 이주근로자)

2022년 5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40여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14만여 명으로 36.7%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가 7만여 명으로 18.1%를 차지하여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은 200만여 명인데, 불법체류는 40만여 명으로 비율은 19.6%에 이르고 있다. 이 40만여 불법체류자 중 법무부가 통제 가능한 불법체류자는 20만여 명이라고 한다.

불법체류자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치안 문제, 불법 금융거래,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신분 악용, 불법체류자의 아동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적기에 지원해주려고 해도 소재지 불명으로 지원해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베트남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문제는 베트남인 문제만은 아니겠으나, 불법체류자 2위의 상황에 있는 만큼 이 문제해결에서도 우선순위의 고려대상이다.

(베트남인 다문화 여성)

2020년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베트남인 다문화 여성은 모두 8만여 명에 이르고 있



다. 베트남인 다문화 여성을 포함해서 초기 우리 정부의 외국인 다문화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착과 안정에 집중되었는데, 지금은 이들에 대해 인권 보호와 사회진출 지원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다.

베트남인 다문화 여성은 부모존경, 가족 중시 등 우리와 문화와 가치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 우리 사회로부터 좋게 평가받고 있다. 차기 총선 시 베트남인 다문화 여성 중에서 우리 국회에 진출하면 베트남인을 포함하여 모든 다문화 여성에게 꿈을 줄 수 있으며, 1억 베트남인들의 마음을 얻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대한 반감 가능성)

외국 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화에 실패하는 경우 주재국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주어 현지에서 배격당할 수도 있다. 일부 중국 진출기업들이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베트남 진출 기업 중 일부 기업도 실패를 경험한 사례도 있다. 1억 인구의 베트남 시장과 이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아세안 시장에서도 중장기 번영과 생존을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눈앞의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 장래를 보며 임하는 게 중요하다. 초기단계부터 OECD와 유엔이 제시하는 기업 윤리 또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서 긍정적 명성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이 착한 기업으로서 명성은 그 기업의 사회적 자본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단체들이 해외 진출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잘 안내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요인)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1월 수교한 이후 상주대사관을 교환 개설했다. 이후 호치민 주석의 북한 방문과 김일성 주석의 답방 등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 기간 중에 북한은 현금, 물자 그리고 공군비행사(203명)를 지원했다. 그러나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해 북한은 중국 편을 들고 베트남을 맹비난하여 상호 대사를 소환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과 베트남은 1980년대 비동맹에서 역할을 두고 적대관계에 이를 정도로 사이가 나빠기도 했다. 이런 상태에서 베트남이 1992년 한국과 수교했을 당시 북한과 베트남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2004년 베트남이 자국 내 탈북자를 대거 한국으로 송환하자 북한은 베트남을 맹비난하면서 관계가 다시 경색되었다. 2007년 베트남 공산당 당서기장의 방북과 북한의 김영일 총리의 베트남 방문으로 두 나라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 했다. 북한과 베트남 간 경제교류는 년 1,000만 불 내외의 무역과 베트남이 간헐적으로 5천 톤 규모의 쌀을 북한에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베트남과 북한은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표방하면서 표면적으로 같은 사상과 이념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베트남은 북한을 전통적 우호 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3. 한국-베트남 관계

한국과 베트남 간 인적교류의 기록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127년 베트남 리(李) 왕조의 이양훈(李楊焄)이 베트남 내 국난을 피해 고려에 와서 정선이씨(旌善李氏)의 시조가 되었고, 99년 뒤인 1226년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李龍祥)이 국난을 피해 고려로 와서 화산이씨(花山李氏)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북경에서 조선 사자(使者)와 베트남 사자(使者) 간 간헐적으로



접촉이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한국은 1965년~1973년 기간 월남전에 파병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하였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 후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고립화정책으로 외교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중앙통제계획경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베트남은 1989년 캄보디아로부터 철군하면서 중국과 북교기반을 조성하면서 1990년 냉전 종식에 맞추어 외교 문호를 개방하고 월남전 참전국과도 외교 관계를 추진하였다. 한국은 한국대로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에게는 한국이 참전의 과거사가 있기는 하지만, 여타 주변 강대국과는 달리 지정학적 충돌과 영토주권 문제가 없어서 협력 동반자로서 적임이었다고 한다. 수교 직후 베트남 지도자들은 짧은 기간 내에 빈곤을 탈출한 한국의 개발 경험과 지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4년 세계은행이 간행한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과정에 참여한 한 고위인사의 회고가 널리 읽혔다고 한다. 한국은 당시 우리 정부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과도 수교했는데 곧바로 베트남의 발전 잠재력에 주목했다. 근세에 프랑스와 독립전쟁, 미국과 통일 전쟁, 중국과 국경분쟁 등 전쟁을 치르느라 발전의 기회를 놓쳤지만, 베트남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30대 인구가 전 인구의 60%를 상회하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커피 2위 수출국 쌀 2위 수출국 그리고 석유·가스의 자급자족 등 자원이 풍부하며 국민의 높은 교육열, 재능과 근면은 널리 알려져 있다. 나아가 지도자들의 발전 의지가 매우 강하고 우리에게도 그렇듯 베트남도 발전에 영감을 주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2006년 그의 저서 'a brief history of the future'에서 베트남이 정치·금융·교육에서 개혁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패를 척결한다면 2025년에 인구 1억2천5백만 명의 나라로 아시아의 3위 경제력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가 예측한 대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베트남은 이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두 번이나 수임하였고 스포츠에서도 박항서 감독의 축구에서처럼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국제 투자를 자석처럼 끌어 20여 년 만에 저소득국가군에서 중소득국가로 진입했고, 매년 7% 정도의 성장을 이어간다면 2027년에는 동남아에서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트남은 이제 동남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메이저 플레이어로 부상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지도자들의 관찰과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 30년 전 우리 두 나라의 만남은 당시 냉전 종식이라는 정세에서 적기를 포착했고, 또 서로의 바람이기도 했다. 앞에서도 간간히 언급했지만,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1992년 우호친선을 바탕으로 수교한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2001년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 2009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며, 2022년에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691억 달러, 2022년에는 801억 달러로 수교 당시에 비해 160배 급증했다. 베트남은 이제 우리의 3위 무역대상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4위 무역상대국이다. 2022년에 베트남은 우리에게 제1위의 무역흑자국이 되었다. 한편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2021년 기준 누적 746억 달러(투자 건수 9,265건)로 베트남 전체 FDI의 18.5%를 차지하여 베트남에게 1위 투자국이다. 한국의 투자는 베트남의 GDP(10%), 수출(30%), 노동자 고용(100만 명) 등 베트남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베트남의 총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 4위 대상국이다. 대 베트남 유·무상 누적 ODA는 약 23억 달러



(2021년 기준)로 우리는 베트남의 2위 ODA 제공국, 베트남은 우리의 1위 ODA 수원국이다. 우리 ODA의 28%가 베트남에게 제공되고 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양국국민 상호방문은 490여만 명(한국인 429만 명 베트남 방문, 베트남인 62만 명 한국 방문), 베트남 내 한국인 거주 15만여 명, 한국 내 베트남인 22만여 명(8만여 명의 다문화 여성 포함)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반영하여 2022년에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되었다. 이는 두 나라 간 교류와 협력에서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이제 가까운 이웃이고 사돈의 나라다. 베트남은 경제안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4. 베트남의 언론

국경 없는 기자(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2021년 세계언론자유지표(World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은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175위다. 기자들의 취재환경이 극히 제한적이고 검열 수준 또한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하는 외교부 자료 인용)

가. 일반 현황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868개 언론사(중앙지, 지방지, 잡지 및 라디오 국영·지방 방송, 인터넷 신문사 포함) 존재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 매체는 당(인민일보)과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조국 전선, 노총, 청년동맹, 여성 동맹)에서 발행한다. 총리 직속 국영 매체 사장과 언론인협회 회장은 당 중앙집행위원으로, 장관급 인사다.

당 정치국 소속 언론인협회가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언론인 권익과 이해 조정을 관장하며 외국과의 교류 등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인협회는 1950년 창립되었고, 2019년 기준 회원 24,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언론국)에서 국내 언론의 인·허가, 검열 등 업무 관장하고, 외신은 외교부 공보국과 Foreign Press Center에서 사증 발급, 취재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언론·통신 분야는 외국 자본 소유권 소유 엄격 금지되고 있다.

가. 주요 매체

- 통 신
- Viet Nam News Agency : 국영통신으로, 세계 21개국에 특파원 파견
- 방 송



- 베트남TV : 6개 채널을 보유한 국영 TV로, 베트남 유일의 전국 TV 방송
- Voice of Viet Nam : 국영 라디오, 5개 채널로 전국 방송
- VTC : 11채널의 베트남 디지털 방송
- 하노이TV :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문화공보부에서 운영하며 하노이와 북부 12개 성에 방송
- 신 문
- 인민일보(Nhan Dan) : 공산당 기관지로 최대 권위지(일간)
- 인민군보(Quan Doi Nhan Dan) : 국방부 기관지로 3대 일간지 중 하나
- 새하노이(Ha Noi Moi) :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발행하는 3대 일간지 중 하나
- 노동(Lao Dong) : 노동총연맹의 기관지이자 주요 경제 일간지로, 주로 노동 문제 취급
- 문화(Van Hoa) : 문화공보부가 발행(주 3회)하는 문화·관광 관련 전문지
- 대단결(Dai Doan Ket) : 조국전선 기관지
- 선봉(Tien Phong) : 청년동맹 기관지, 대중지
- 주간국제(Quoc Te) : 외교부 기관지로 국제문제 주로 취급
- Viet Nam News : 국영통신사가 발행하는 유일한 중앙 영자 일간지
- Viet Nam Investment Review : 기획투자부가 발행하는 경제 전문 영자 주간지
- Viet Nam Economic News : 산업무역부가 발행하는 경제 전문 영자 주간지

5. 베트남 지도자 인적사항

「응우옌 푸 쯙」당서기장



성명	Nguyen Phu Trong (응우옌 푸 쏹)	
생년월일	1944. 4. 14 / 하노이 출생	
학력	○ 1967 하노이 종합대학 문학과 졸 ○ 1983 구소련 유학,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주요경력	○ 1967.12 베트남 공산당 입당 ○ 1991~96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 1996.10 하노이시 당 부서기 ○ 1997.12 공산당 정치국원(당 중앙위 교육문화담당) ○ 2003.3 하노이시 당서기 ○ 2006.4 당 정치국원(서열 6위) ○ 2006.6 국회의장 ○ 2011.1 당서기장(서열 1위) * 2016.1 연임 ○ 2018.10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 2021.1 당서기장 3연임	
참고사항	○ 온화하고 지성을 겸비한 인물로 청렴한 공직생활 유지 ○ 정치학 박사 및 부교수 출신으로 과거 교수직 및 연구직을 주로 경험 ○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학자풍의 온건 중도파라는 평가	
방한 경력	○ 2014.10월 방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면담)	

「응우옌 쑤언 폭」국가주석



성명	Vo Van Thuong (보 반 프엉)	
생년월일	1970년 12월 13일 / 빈롱성(남부) 출생	
학력	- 호치민대 철학전공 - 호치민 인문사회대 - 호치민 정치아카데미	
주요경력	1993년 공산당 입당 2006년 베트남 청년동맹위원장 2015년 호치민시 당위원장 2016년 당 정치국원 2021년 당 상임서기(권력서열 5위) 2023년 3월 국가주석	
방한 경력	2022. 7월 한국-베트남수교30주년 베트남대표단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면담)	

「팜 밍 쩡」총리



성명	팜 밍 쩡 (Pham Minh Chinh)	
생년월일	1958.12.10 타잉호아 성(중북부) 출생	
학력	○ 루마니아 유학 건축학, 법학 박사	
주요경력	○ 1984 내무부 과학·경제·기술 연구부 연구원 ○ 1989 주루마니아대사관 1등서기관 ○ 1996 公安부 근무 ○ 2006 公安부 부총국장 ○ 2007 소장 진급 ○ 2009 公安부 기술보급총국장 ○ 2010 중장 진급,公安부 차관 ○ 2011.8 Quang Ninh성 당서기 ○ 2015.4 당 조직위 부위원장 ○ 2016.2 당 조직위원장 (※ 베-일 친선협회장) ○ 2021.4 총리	
방한 경력	○ 없음	

「브엉 딩 후에」국회의장



성명	Vuong Dinh Hue (브엉 딩 후에)	
생년월일	1957. 3. 15 / 응에안성(중북부) 출생	
학력	○ 하노이 재무회계대학 ○ 슬로바키아 Bratislava 경제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 1979-99 하노이 재무회계대학 ○ 1999-01 하노이 재무회계대학 부총장 ○ 2001-06 회계감사원 부원장, 당 중앙경제위원회 위원 ○ 2006-11 회계감사원 원장 ○ 2011-12 재무부 장관 ○ 2012-16 당 중앙경제위원장 ○ 2016-20 부총리(기획, 재정, 금융) ※ 정치국원 선출 ○ 2020-21 하노이시 당서기 ○ 2021.4 국회의장	
방한 경력	○ 2014.8 방한 ○ 2019.6 한-베 경제부총리회의 계기 방한 ○ 2021.12 국회의장 공식 방한	

6. 베트남의 국제 관계(외교부 자료 인용)

□ 중국 :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중국은 지리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베트남에게 안보와 생존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다.

근세에 들어 중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립 후 이를 가장 먼저 승인하고, 베트남의 대



프랑스, 대 미국 전쟁에서 월맹(Vietminh) 측에 총 32만 명의 지원군 파견하는 등 병력 및 물자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협력관계가 1970년대 들어 미·중 간 화해(1971년 1월), 통킹 만과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군도 등을 둘러싼 영유권 문제, 1975년 베트남 통일 후 베트남 내 2만 화교 강제추방 등 잦은 갈등과 분쟁으로 양국관계가 소원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8년 1월 베트남이 구 소련과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12월에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결국 1979년 2월 베트남과 중국 간에 전쟁이 발발했고, 양국관계는 절단절되었다. 중국은 베트남을 국제적으로 고립화 시키려고 시도했고 베트남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전후 복구 및 개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한 베트남은 1989년 1월 캄보디아로부터 철군을 발표하고 대중 관계개선을 추구했다. 1991년 2월 Le Kha Phieu 당기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설정에 합의하여 복교하고 이후 양국은 ‘16자 원칙(장기안정, 미래지향, 선린우호, 전면협력)’에 따라 고위인사 교류 및 현안 해결 도모하였다. 2008년 5월 Nong Duc Manh(농 득 마잉)당서기장 중국 방문 시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2008.12월 양국 간 육로 국경 획정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양국 간 1,400km에 달하는 거리에 총 1,991개의 경계석 설치를 종료함으로써 베-중간 역사상최초의 국경 확정이었다. 2013년 6월에는 Truong Tan Sang(쯔엉 턴 상) 주석이중국을 국빈 방문 시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베중 양국 정부 간 행동계획’에 서명하였다.

이런 우호협력 관계는 2011년 들어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조성되었으며, 2014년 5월 중국의 황사군도 시추선 설치 등으로 인해 양국 갈등이 고조되었다. 2015년 베트남 당서기장 및 시진핑 중국 주석의 상호 방문 등 최고위급 외교로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양국 간 남중국해 관련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은 국제 법에 부합하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에 기반 하여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원자재·부품 공급 국으로서, 베트남으로서는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서도 대중국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뢰 유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중국 관계의 근간은 ‘당 대 당 관계’로서 주로 당 채널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16년 9월 Nguyen Xuan Phuc(응우옌 쉐언 폭) 총리 방중, 2016년 11월 장더장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베, 2017년 1월 Nguyen Phu Trong(응우옌 푸 쩡) 당서기장 방중, 2017년 5월 Tran Dai Quang(쩨 다이 꺽) 국가주석 방중, 2017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 방베 등 2018년부터 양국 간 총리급 이상 최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이 있었다.

□ 미국 : 포괄적 동반자 관계



1975년 4월 베트남 공산화 이후 베트남에서 물러난 미국은 대 베트남 경제제재 조치를 실시하였다. 중국과 미국 등에 의해 국제적 고립에 처한 베트남이 1989년 9월 캄보디아 주둔군을 철수하고, 구 월남 정치범의 미국 정착 허용 및 월남전 실종미군(MIA)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 자세를 보인데 대해 미 부시 행정부는 1991년 4월 베트남에 대해 단계적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점진적 국교정상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시하였다. 2000년 7월 베트남-미국 무역협정체결 및 2000년 11월 클린턴 대통령 베트남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나가던 중 미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2월 대 베트남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1995년 7월 대 베트남 국교정상화 성명을 발표하여 양국관계 정상화가 실현되었다. 2005년 6월 Phan Van Khai 총리는 베트남 전 종전 후 정상급 지도자로는 최초로 방미,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호적이고 건설적이며 다차원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양국관계 발전의 틀 구축하였다.

○ 오바마 행정부 시기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 대응 및 미국의 아 태 재 균형 정책과 맞물려 베트남-미국 간 정치·안보 분야를 포함한 제 방면에서 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2013년 Truong Tan Sang 베트남주석의 방미 계기에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되었고 이 계기에 양국 간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2015년 베트남-미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당 서기장으로는 사상 최초로 Nguyen Phu Trong 당 서기장이 방미, 양국 관계 발전 전기 마련했으며, 2016년 5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미국은 △무기 금수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고엽제 피해자 보상 및 지뢰 불발탄 제거 지원 등을 통한 과거사 극복에 협력을 발표했다. 2021년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취임 이후에도 미국은 오스틴(Austin) 국방장관 방문(7월), 해리스(Harris) 부통령 방문(8월) 등 고위급 방문을 적극 추진하고, 고엽제 피해 회복 등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함께 미국 해양경비함 2척(해밀턴급) 기증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 일본 : 확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

1952년 일본은 구 월남을 베트남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미군의 베트남전 개입 옹호 및 자국을 보급기지로 허용하여 월맹 측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1973년 1월 미국과 베트남 간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자 일본은 월맹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베트남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였으나,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원조를 중단하였다.

1989년에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캄보디아 주둔군 철수 등 여건이 호전되자 일본은 1992년부터 대 베트남 공적개발원조를 대규모로 재개하고 투자, 교역확대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베트남 최대 원조국이며 베트남 경제성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사회경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격차 해소, 환경 보전, 거버넌스 개혁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2008년 9월 일본은 베트남과 양자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2009년 4월 Nong Duc Manh 베트남 당서기장의 일본 방문 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했다.

이 관계는 2014년 3월 확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2015년 9월 Nguyen Phu Trong(응우옌 푸 쯡) 베트남 당서기장 방일, 2016년 5월 G7 계기 Nguyen Xuan Phuc(응



우옌 쑤언 폭) 총리 방일 시 정상회담), 2017년 1월 아베 총리 방베, 2017년 2월말 아키히토 일왕 방 베, 2020년 10월 스가 총리 방베, 2021년 11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첫 정상급 외빈으로서 팜 밉 쩡 총리가 공식 방문 등 두 나라 간 활발한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 러시아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1950년 1월 소련은 남중국해의 항구 및 대 중국 견제세력 확보를 위해 중국에 이어 월맹 정권을 승인하고, 월맹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각종 원조 제공했고, 특히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월맹에 경제를 지원하고, 미국과의 전쟁 시에는 월맹에 군사원조를 제공했다.

1978년 11월에 베트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 베트남은 소련에게 1979년-2004년간 캄란 만 군사기지 임대, 소련군 정규병력 및 군사고문 주둔허용 등을 통해 양국 간 정치·경제·군사적 특수 관계 형성되었다. 베트남은 소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후 캄보디아를 침공했다. 1980년대 들어 소련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대 베트남 원조가 급감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악화되다가 1990년 구소련 붕괴로 관계는 소원하게 되었다.

- 1994년 6월 Kiet(키엣)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 양국 간 신우호협력조약 체결을 통해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새로운 협력관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트남 방문 시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고 이 관계는 2012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 베-러 관계는 △과거 베트남전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특수한 정치·군사 관계 △에너지 및 원전 협력을 고리로 한 경제 관계 △중국의 부상 등 역내외 정세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적 이해 공유라는 3대 요인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두 나라 간 고위인사 교류 방문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Nguyen Xuan Phuc(응우옌 쑤언 폭) 총리 러시아 양자 방문(러-ASEAN 특별정상회의 참석 계기), 2017년 6월 Tran Dai Quang(쩨 다이 꾸앙) 국가주석 방러, 2018년 9월 Nguyen Phu Trong(응우옌 푸 쩡) 당서기장 방러, 2018년 11월 메드베데프 총리 방베, 2021년 12월 Nguyen Xuan Phuc 국가주석 방러 등 고위급 외교 가 이루어졌다.
-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비판 및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 측과의 소통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중립적 입장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맺음말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다. 풍부한 자원,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재기하는 복원력, 국제사회의 변화에 신속한 적응력 그리고 지도자들의 국민복지 우선 접근 등이 베트남 잠재력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정치, 금융, 교육 개혁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부패 척결의 도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은 국내적으로는 부패와의 전쟁, 대외적으로는 남중국해 문제가 당장의 도전으로 보인다. 이런 도전들을 잘 관리하면서 극복해나간다면 2045년 독립 100주년에 즈음해서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은 발전 성공국가로 또 하나의 한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보인다.

우리와 역사적 배경에서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베트남은 경제안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2022년에 베트남은 우리에게 최대 무역흑자를 가져다준 나라다.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고도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 및 인적교류에서 베트남은 우리에게 상호이익을 줄 있는 적임 파트너로 보인다. 끝.